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정인주 · 김수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The Effe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Cinema on Self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Adolescent on Probation

In Ju Jeong · Soo Jin Kim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cinema for the improving self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adolescents on probation.

Methods: The subject were 36 (Experimental. 20, Control. 16) adolescents on probation who were referred to N mental health center in G city South Korea, but 2 of the experimental group did not complete the program. The program consisted of 8 sessions and was conducted from November, 2008 to February, 2009. The study variables were 'self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urvey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Results: Self identity ($t=-2.797, p=.005$),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3.354, p=.001$) changed more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control group after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cinema.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cinema for adolescents on probation was especially effective in increasing self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ey Words: Probation, Self identity, Self efficacy, Career counsel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성장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자신의 흥미를 찾고 이에 맞는 능력을 개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일 것이다. 진로 문제는 인간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딪치는 과제이며, 각 발달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독특한 문제가

기보다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진로 문제는 발달단계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역시 차이가 있어 발달단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이은경, 2001).

청소년기는 진로 발달단계에서 진로탐색과 설계, 진로에 대한 준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진로 상담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은 자기 탐색과 다양한 직업 정보를 통해 진로결정의 합리적 과정에 대

Corresponding author: Soo Jin Kim,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 Haki-dong, Dong-gu, Gwangju 501-746, Korea.
Tel: 82-62-220-4351, Fax: 062-220-4544, E-mail: pinehillkim@naver.com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임.

투고일 2011년 9월 21일 /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6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3일

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한정아, 2010).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보다는 명문 대학 입시를 대비하는 획일적인 교육에 치우쳐 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 흥미,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 위주로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적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다가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충기, 1994).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가장 심각한 진로 문제 중의 하나는 진학 외에 바람직한 취업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뚜렷한 직업 없이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업 중단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자기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직업을 계획하며, 선택한 직업에서 적응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진로상담이 절실히 필요하다(곽영주, 2004). 또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가정법원의 판결 과정과 장시간 법적 체제를 받는 기간 동안에 자아정체감이 손상되기 쉽다. 청소년시기에 보호관찰을 받음으로서 그 과정에서 겪은 환경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내부에서 경험하는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감정이 억압되고 이는 결국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요인이 된다(이은경, 2005). 이와같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정적인 자아정체감과 학업중단으로 인한 진로문제이므로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고 진로 계획을 확립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은 성인이나 아동들에 비해 환경적 모방을 통한 관찰학습에 더 강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청소년시기에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올바른 진로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김문수와 박소현, 1998).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 중에서도 영상매체는 청소년의 정서 및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문화 환경 요소 중의 하나이다(최영희, 2009). 특히 영상세대라 불리우는 현재 청소년들에게 영화는 과거 문학이 차지했던 일상생활의 일부분을 대신하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책 보다 영화 속에서 더 자신에게 맞는 삶의 가치와 표현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고(유태웅, 2001), 청소년들이 영화 속 주인공의 옷과 액세서리 및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거나 주인공의 말투를 따라하는 등 영화의 파급효과는 일상적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이혜경, 2002).

이처럼 영화는 짧은 순간에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의 문화와 삶에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런 방법으로 인간의 행동 및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대체 수단으로써 다른 어떤 도구보다도 상담에서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김준형, 2006).

영화치료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치료 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고(박선민, 2003),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 향상과 성고정관념 완화에 효과가 있었으며(서정임, 2007), 중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희, 2009). 영화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관한 연구로는 고교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한정아, 2010)과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김미선, 2010)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청소년에게 프로그램 적용 시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청소년에게 영화가 친숙하게 다가갈 상담에 대한 자발적 동기를 높여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유태웅, 2001). 최근 영화치료 연구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효과 논문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치료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근 새로운 심리치료의 도구로 떠오르고 있는 영화를 기존의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재구성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청소년 정신간호중재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아정체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3. 용어정의

1)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이란 재범방지를 위해 6개월~2년간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지도와 원호를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임성모, 2000). 본 연구에서는 G시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N정신보건센터에 의뢰된 청소년을 의미한다.

2)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의 영속성, 단일성, 독자성 또는 불변성이고,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이며,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영속성과 단일성에 사로잡히는 주관적 느낌이다(박아청, 2003).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은 박아청(2003)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과 개인의 진로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준비 정도이다(황지현, 2006).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 (1983)가 개발하고 이은경(2001)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

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N정신보건센터에 의뢰된 15~19세의 남자 청소년 36명을 편의 표집하였으며, 실험군 20명, 대조군 16명을 임의 배정하였다. 본 연구참여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며, 연구목적 이해하고 본 연구에 자의로 참여하기를 수락한 자로서 전체 대상자 36명중 중도탈락한 2명을 제외시켜 최종 대상자는 총 34명(실험군 18명, 대조군 16명)이었다.

그리고 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Power 3.1.2로 산출했으며, 효과크기 .80, 검정력 .70, 유의수준 .05로 계산하여 그룹당 16명씩 총 32명이었으므로 본 연구 표본수는 적절하였고, 정규분포 검정을 위한 Kolmogorov Smirnov test에서 유의수준 .05 이상으로 모든 변수는 정규분포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박아청(2003)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주체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및 친밀성 등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60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박아청(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 (1983)가 개발하고 이은경(2001)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등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25문항의 6점 척도의 도구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4. 실험처치: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영화를 활용한 진로탐

색 프로그램(심영섭 등, 2008)의 내용 중 직업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영화를 통해 설명, 영화를 통해 과거·현재·미래의 모습 표현, 영화감상 후 직업윤리관 교육, 영화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 찾기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계획하여 진로에 대한 확신을 주는데 있다. 각 회기에 사용된 영화와 구조화된 질문지는 한국영상응용연구소 영화목록을 참조하여 영화치료전문가 1인과 간호학교수 1인의 자문을 얻어 연구목적과 회기별 주제에 적절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8회차로 친밀감 형성, 자기이해 및 자아정체감 형성,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의사결정, 생애설계 및 마무리 단계로 구성되었다.

‘친밀감 형성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방식을 설명하고 자기소개와 warming-up 게임을 통해 집단원간의 응집력과 유대감을 증진시켰다.

‘자기이해 및 자아정체감 형성 단계’에서는 홀랜드 직업적성 검사를 소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영화의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을 통합하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여 미래확신성을 가지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화 ‘키드’를 선정하였다. ‘직업세계의 이해 단계’에서는 영화 ‘제리 맥과이어’를 선정하여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주인공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며 변화를 겪게 되는 직업적 윤리관을 통해 자신의 직업적 판타지와 포부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자신의 긍정적 자원을 찾아 성공하는 등장인물의

<표 1>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단계	회기	주제	목표	내용
친밀감 형성	1	만나서 반가워	프로그램 소개 및 목표설정	· 진행자 및 프로그램 목적 소개 · 프로그램 집단규칙 정하기 · 홀랜드 적성검사 실시
자기이해 및 자아정체감 형성	2	널 만나러 가는 길	적성에 맞는 직업정보탐색	· 홀랜드 적성검사 소개 및 결과 분석 · 적성에 맞는 직업군 영화의 등장인물을 통해 설명 · 직업적 성격유형과 다양한 직업군 탐색
	3	시간이 흐른 뒤	나의 미래확신	· “키드” 영화감상 후 집단토론 · 8살현재-30대 자신의 모습과 꿈 표현하기 · 미래확신을 통한 자아정체감 형성하기
직업세계의 이해	4	슬깃한 제안	직업의 현실적인 측면을 통한 직업목표선택	· 직업적 포부 및 판타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 “제리 맥과이어” 영화감상 후 집단토론 및 직업윤리관 교육 · 돈과 인간적인 요소의 가치 비교하기 ·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현명한 직업목표 선택
	5	행복한 장점 읽기	성공을 위한 자신의 긍정적 자원 파악, 주도성 확립	· “행복을 찾아서” 영화감상 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또 다른 측면 집단토론 및 면접 상황극 · 주체성과 주도성을 기르고 자아존중감 증진
진로의사 결정	6	현명한 선택	바람직한 의사결정방법을 통한 문제해결	· “크림슨 타이드” 영화감상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 이해 · 다양한 직업선택 기준에 따른 의사결정을 위한 직업목록세우기
	7	어느 멋진 날	희망직업에 대한 목표선택, 직업정보탐색	· 객관적인 직업정보 탐색 · 2명씩 짝을 지어 희망직업에 대한 인터뷰 · 구체적인 목표선택을 통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생애 설계 및 마무리	8	내 꿈은 내가 만든다	단, 중, 장기 미래계획과 실천대안작성	· 장, 중, 단기 미래계획 및 실천대안 ·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버려야할 목록 작성 · 칭찬 릴레이를 통한 자아존중감 증진 · 프로그램 평가 및 종결

모습을 통해 주제성과 주도성을 다루고자 영화 ‘행복을 찾아서’를 선정하였다. ‘진로의사결정단계’에서는 영화 ‘크림슨 타이드’가 올바른 의사결정방법을 습득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되었다.

프로그램은 실험군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총 8회차로 진행되었으며, 1회기 당 소요시간은 120분이었다. 프로그램은 G시의 보호관찰소와 N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였고, 회차별 진행은 영화 내용소개 및 감상, 구조화된 질문, 구조화된 활동, 회기에 대한 느낌을 나누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5. 자료수집

본 연구자는 한국영상응용연구소(KIFA)에서 실시하는 영화치료 5단계 워크숍을 수료한 후 한국영상응용연구소(KIFA)에서 수여한 영화치료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본 연구 프로그램 전체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2월 19일까지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시행되었다.

사전준비로서, 프로그램 실시 전에 G시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자가 직접 기관의 연구참여 동의를 얻고 담당직원의 협조를 받아 실험군과 대조군을 임의 배정하였다.

사전 조사로서,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같은 방법으로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전 조사 실시 전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기간, 대상자의 역할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의 특성상 실험군 18명을 한 그룹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 9명씩 배정하였으며, 주 1회, 총 8회차로 실시되었고, 1회 소요시간은 120분이었다. 회차별 영화상영은 1시간으로 연구자가 사전에 주요 장면을 편집하여 보여주었다.

실험군에게는 프로그램 종료 1주일 후 사전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조군에게는 프로그램 중재 없이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참여자에게 사전 조사 실시 전에 연구목적, 연구 진행절차, 신분 및 사생활 보호, 자료 보호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동의서를 받았다. 대조군

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종료 후, 대상자에게 실험군에게 실시한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연구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Smirnov test를 시행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2 -test, Fisher's exact test 및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설검정은 paired-t test,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동질성 검정

1) 일반적 특성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대상자의 나이는 실험군은 ‘15~17세’가 61.1%, ‘18~19세’가 38.9%이었으며, 대조군은 ‘15~17세’가 62.5%, ‘18~19세’가 37.5%이었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실험군은 ‘중퇴’가 38.9%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재학 중’ 33.3%, ‘고등학교 재학 중’은 27.8%이었고, 대조군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 50.0%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재학 중’과 ‘중퇴’가 각각 25.0%이었다.

부모관계는 실험군은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61.1%로 가장 많았고, ‘계부와 친모 또는 계모와 친부와 살고 있는 경우’ 16.7%, ‘친부 혹은 친모와 살고 있는 경우’ 11.8% 순이었다. 그리고 대조군은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68.8%로 가장 많았고, ‘친부 혹은 친모와 살고 있는 경우’ 11.8%, ‘계부와 친모 또는 계모와 친부와 살고 있는 경우’ 6.3% 순이었다.

가족에 대한 편한 정도는 실험군은 ‘편하다’가 38.9%로 가장 많았고, ‘매우 편하다’ 33.3%, ‘불편하다’ 16.7%, ‘매우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N=34)

특성	분류	실험군 (n=18)	대조군 (n=16)	χ^2 (Fisher's exact)	p
		n (%)	n (%)		
나이	15~17	11 (61.1)	10 (62.5)	0.007	.934
	18~19	7 (38.9)	6 (37.5)		
학교 수준	중학교	6 (33.3)	4 (25.0)	1.779	.472
	고등학교	5 (27.8)	8 (50.0)		
	학교 중도탈락	7 (38.9)	4 (25.0)		
부모 관계	친아버지, 친어머니	11 (61.1)	11 (68.8)	0.885	.642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	4 (11.8)	4 (11.8)		
	친어머니, 새아버지	3 (16.7)	1 (6.3)		
가족에 대한 느낌	매우 편하다	6 (33.3)	5 (31.3)	5.883	.117
	편하다	7 (38.9)	11 (68.8)		
	불편하다	3 (16.7)	0 (0.0)		
	매우 불편하다	2 (11.1)	0 (0.0)		
가족과 대화	자주 한다	17 (94.4)	15 (93.8)	0.007	.932
	자주 못 한다	1 (5.6)	1 (6.3)		
가족 간 이해	이해가 잘 된다	13 (72.2)	10 (62.5)	0.366	.545
	이해가 안 된다	5 (27.8)	6 (37.5)		

불편하다' 11.1% 순이었다. 그리고 대조군은 '편하다'가 68.8%, '매우 편하다' 31.3% 순이었다. 가족과의 대화는 실험군은 '자주 한다' 94.4%, '자주 못한다' 5.6%이었고 대조군은 '자주 한다' 93.8%, '자주 못한다' 6.3%이었다. 가족 간의 이해는 실험군은 '이해가 잘 된다'가 72.2%, '이해가 안 된다' 27.8%이었고 대조군은 '이해가 잘 된다' 62.5%, '이해가 안 된다' 37.5%이었다.

2) 종속변수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2. 가설 검정

가설 1.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정체감이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220.94점에서 실시 후 231.50점으로 10.56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실시 전 226.25점에서 실시 후 210.56점으로 15.69점 감소하여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797, p=.005$) (표 4).

가설 2.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103.33점에서 실시 후 115.72점으로 12.39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실시 전 105.94점에서 실시 후 93.88점으로 12.06점 감소하여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354, p=.001$) (표 4).

고 찰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지지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은 자기 자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불변하는 실체로 인식하는 개인의 느낌이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이 발달되는 청소년 시기에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성취하는데 실패하고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 역할혼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이은경, 2005),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3>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N=34)

종속변수	실험군 (n=18)	대조군 (n=16)	t	p
	M±SD	M±SD		
자아정체감	220.9±40.07	226.3±39.13	-0.390	.350
주체성	37.2±7.92	37.3±6.52	-0.058	.477
자기수용성	38.9±7.51	41.0±7.73	-0.786	.219
미래확신성	36.2±6.59	38.2±5.68	-0.925	.181
목표지향성	34.6±8.58	35.9±8.23	-0.437	.333
주도성	35.7±8.76	35.2±7.64	0.169	.434
친밀성	38.3±6.14	38.7±6.59	-0.162	.43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03.3±29.16	105.9±18.78	-0.305	.381
목표선택	47.9±13.42	49.4±8.95	-0.375	.355
직업정보	24.6±8.00	25.1±5.64	-0.188	.426
문제해결	11.8±3.75	11.0±3.98	0.586	.281
미래계획	19.1±6.66	20.5±4.56	-0.728	.236

<표 4> 프로그램 후 두 집단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화

(N=34)

변수	집단	사전	사후	paired t		Difference	t	
		M±SD	M±SD	t	p	M±SD	t	p
자아정체감	실험군 (n=18)	220.9±40.07	231.5±41.07	-1.834	.084	-10.6±24.41	-2.797	.005
	대조군 (n=16)	226.3±39.13	210.6±25.68	2.075	.056	15.7±30.2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실험군 (n=18)	103.3±29.16	115.7±22.07	-2.519	.022	-12.4±20.87	-3.354	.001
	대조군 (n=16)	105.9±18.78	93.9±19.04	2.233	.041	12.1±21.61		

심영섭(2006)은 영화치료는 집단원들에게 일종의 교환적인 이야기,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 또는 잠재 능력을 개발하거나 이에 접근하기 위해 특정한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모방에 강한 청소년의 특성상 영화는 매우 유용한 교육매체라고 생각된다.

이형득(1989)은 청소년이 자기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집단경험학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집단상담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에게 집단상담 실시를 통해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과 꿈을 탐색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긍정적인 자원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었고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 성격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아개념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Holland 직업적성검사’를 통해 집단원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유형을 파악하여 각각의 직업유형 특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직업유형에 접근하였다. 직업적성검사

를 실시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같은 동기, 흥미, 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기를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며, 자기일관성을 갖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정서, 인지, 행동 그리고 정신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화(Schulenberg, 2003)를 치유적으로 사용한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자아정체감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기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박은성(2008), 문가연(2004) 및 최혜경(2009)의 연구와 일치하며 영화와 유사한 영상자료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박선민(200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와같이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아정체감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확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집단상담을 활용을 통하여 그룹원들과 친밀해지고 활발해져서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영화가 자아정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이번 연구에서 효과가 검증되었듯이 영화가 자아정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영화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지지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으로써 진로결정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므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박선민(2003)은 영화 속에서 주인공과 자신의 동일시를 통하여 엄청난 무의식의 대리경험과 만족을 하는 것이 내담자로 하여금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고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실제 자신의 진로 관련 문제에 직접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적용해 보는 활동을 통해 개인의 행동 선택과 수행 그리고 행위의 지속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객관적인 직업정보, 직업적 요구조건과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실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한 인물이 된 상황을 역할극으로 경험해보게 했던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꿈이 무엇이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상담과정에서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과 직업의 종류 및 본질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는 갈수록 현존하는 수많은 직종들이 없어지고 새로이 생겨나며 일의 방법 또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래성이 있는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장석민, 1997).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자들이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직접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자세하게 다루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호관찰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자신의 결정 및 선택에 대한 확신 정도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프로그램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감이나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여 직업정보를 얻는데

기여하였으며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선택하는 시간과 미래를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임은미와 김현진(2002), 조용선(2005) 및 장선숙(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영화를 활용한 진로집단 상담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김미선(2010), 한정아(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같이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호관찰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법적 제재를 받는 동안 심리적인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며 그들을 편견없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또한 진로지도를 받기가 어려운 보호관찰청소년의 진로를 돕기 위해, 자기탐색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설계를 할 수 있는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상담의 치료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표출시키고 동일시와 모델링 효과가 높은 영화를 활용한 본 연구가 보호관찰청소년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그 효과성이 확인된 유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정신간호 실무 현장에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신간호 실무 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영화치료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고 간호 실무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의 사례 수가 적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택하지 못했다는 점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순수하게 영화 매체를 통한 효과라고 보기에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신간호중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정체감이 높았다.

둘째,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달리하고 연구기간을 확대한 반복 측정 연구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영화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집단상담을 실시한 집단을 대조군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곽영주(2004). **진로집단상담이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3, 서울.
- 김문수, 박소현(1998). **학습과 행동**.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미선(2010). **영화를 활용한 진로탐색 집단 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3, 부산.
- 김준형(2006). **영화집단치료 프로그램이 자아실현과 영성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7(1), 183-200.
- 김충기(1994). **대학에서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994(2), 120-161.
- 문가연(2004).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여중생의 진로성숙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6, 순천.
- 박선민(2003). **영상자료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8, 창원.
- 박아청(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17(3), 373-392.
- 박은성(2008).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6, 광주.
- 서정임(2007).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6(2), 105-121.
- 심영섭 역(2006). **시네마테라피**. 서울: 을유문화사.
- 심영섭, 김준형, 소희정, 주순희(2008). **영화를 활용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서울: 한국영상응용연구소.
- 유태웅(2001). **청소년의 영화 관람 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 서울.
- 이경애(2003).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향상 및 진로장애 요인 감소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50, 부산.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47, 서울.
- 이은경(2005). **보호 관찰소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효과검증**.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 21, 353-366.
- 이형득(1989).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혜경(2002). **청소년 인성교육에 있어 영화상담 적용방법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0, 서울.
- 임성모(2000). **비행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1, 공주.
- 임은미, 김현진(2002).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18, 425-443.
- 장석민(1997). **중퇴생의 예방과 진로선도 대책**. **진로교육연구**, 7, 1-52.
- 장선숙(2003). **인터넷활용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62, 진주.
- 조영선(2005).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8, 안양.
- 최명선(2004). **영화치료가 병사들의 지각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 석사학위논문, 1-62, 서울.
- 최영희(2009).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중학교 남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625-641.
- 최혜경(2009).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7, 춘천.
- 한정아(2010). **영화치료를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이 고교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48(5), 51-75.
- 황지현(2006). **컴퓨터 교과 수행 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간의 상관관계 연구**. **건설환경연구**, 5(4), 127-140.
- Schulenberg, S. E. (2003). **Psychotherapy and movies: On using film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33(1), 35-48.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